

헤센 독서 모임 March 16, 2025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필리프 들레름 - 크루와상 사라 가는 아침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몇 년 전 선물 받은 책입니다. 지난주 독서모임 직후에 신나게 빵을 사라 가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올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삶을 평화롭고 유쾌하게 만드는 작고 평범한 기쁨들'을 얘기합니다. 크루와상, 첫 맥주 한 모금, 바닷가에서 책 읽기, 가을 스웨터, 완두콩 깍지를 까는 일, '잘하면 정원에서 점심 먹어도 될 것 같은데'하고 말하는 순간 같은 장면들이 짝막하게 담겨 있어 어느 부분을 읽어도 즐겁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
당신은 맨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인디언 초병처럼 조심스럽게 옷을 꿰어 입는다. 시계 수리공처럼 세심하게 현관문을 여닫는다. 이제 밖이다. 당신은 가장자리가 장밋빛으로 접어 감쳐진, 어슴푸레한 새벽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당신은 이른 새벽의 보도 위에서 여유롭고 경쾌하다. 빵집의 거리따윈 상관없다. 내딛는 걸음걸음이 축제다. (...) 이윽고 빵집에 다다르면, 늘 알맞은 정도의 김이 유리창에 서려 있다. 빵집 여주인은 새벽 공모자인 첫 손님에게 유달리 특별하고 명랑하게 아침인사를 건넨다. "크루와상 다섯 개와 너무 파삭하지 않은 바게트 하나 주세요." 다시 밖으로 나온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다. 집으로 돌아갈 때의 걸음걸이가 빵집에 올 때와 다르다는 것을. 봉지에서 크루와상 하나를 집어든다. 차가운 이른 아침을 걸으며, 약간의 식탐도 부리며 먹는 크루와상. 서서히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딘다. 당신은 황금빛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푸른 빛과 잿빛을, 그리고 사라져가는 장밋빛을 가로지른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어쩌나. 당신은 이미 하루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먹어버렸으니.
위에 적은 구절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여행이 제게 주는 즐거움의 절반은 준비 과정의 설렘과 기대감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머물며 커피 한잔하고, 여행지에서의 일정도 리마인드하는 '시작 직전의 순간'도 즐겁습니다. 저는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건 갓 구워 나온 빵이죠. (그야말로 빵 중의 빵) 예전에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오던 길에 들르던 빵집이 있었습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오후 4시-5시쯤에도 갓 구운 바게트가 있었어요. 항상 들러서 저녁식사용 바게트를 두 개씩 샀습니다. 옆에 바게트를 끼고 걷다 보면 빵냄새에 홀려서 야금야금 뜯어서 먹으니, 기숙사 도착할 무렵엔 하나가 사라지거든요. 조금 돌아서 가면 대통령궁에 납품한다는 바게트 대회 1등 빵집도 있지만, 갓 구운 빵냄새를 맡으면 그런 명성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때는 저녁 시간이 항상 좋았는데, 돌이켜보니 가장 좋았던 건 바게트를 사서 야금야금 뜯어 먹으며 오늘 저녁은 무슨 요리를 해먹나 고민하던 그 순간이었네요. 기다리며 설레는 시간. 곧 일어날 일을 즐겁게 기다리는 시간이요.